

2023

새해 이렇게

이상의 함평군수

“변화·혁신으로 확 달라진 함평의 미래 열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최우선 과제로 선정 MZ세대 소통·청년 리더 양성...산단 기숙사+복합문화센터

“함평의 장기적인 발전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더욱더 활기찬 함평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집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올해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빛그린 국가산단에 자동차 연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보 농공단지를 확장해 산업단지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 유입과 산단 근로자 등 외부인구의 함평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과는 확 달라진 함평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펼치겠다”며 “군민이 부자 되는 함평, 군민이 행복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MZ세대와 군수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변화된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군수는 “여러 분야의 역량을 갖춘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 군수는 이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근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함평 산단과 학교농공단지에 기숙사 시설이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함평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발행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평의 미래를 이끌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안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과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군수는 “자연생태공원에 생태숲 길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숲을 만들겠다”며 “함평엑스포공원 내 문화유물전시관을 신축해 함평천지길, 야간 경관조명 등과 함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겠다”고 설명했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문화유물전시관을 신축해 함평천지길, 야간 경관조명 등과 함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통한 숙박시설 유치와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에도 힘을 계속 쏟는다. 함평 에듀테인먼트파크 조성사업도 올해는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내수영장 건립, 함평스포츠타운 조성,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물론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군수는 밝혔다.

그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

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함평형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와 극복 의지도 표명했다.

군민과 공직자가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대비한다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30년 후의 함평에 새롭고 희망찬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소신이다.

이 군수는 이어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의 함평군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함평군 또한 예외는 아니지만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새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직한 마음으로 오직 군민과 함평의 미래를 바라보고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

청년 창업 초기비용 지원...시제품 제작·임차료 등 연 1500만원

나주시가 청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청년들의 초기 창업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규사업부문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들의 소득 안정, 창업에 따른 추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3가지 분야에서 지자체 선정 사업을 선정했다.

나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상생기반대응형 분야로

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시는 관내 만39세 이하 가업 2세 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1년차에 시제품 제작, 공간 임차료 등 연간 1500만원을 간접비용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올해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56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창업을 희망하는 1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년차에는 지역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연간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 상생 일자리를 발굴을 도모한다.

사업은 이번달 참여자 공고·모집을 통한 1차 서

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갖고 2~3차 현장 모니터링 및 선정 예정 컨설팅,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부터 간접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나주시 그린로 369 3층)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만의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생존을 높여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주=수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장성군, 중기에 4년간 54억 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10개 사업...미래 경쟁력 확보 중점

장성군이 새해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54억 45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4년간 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시제품 생산·판매·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기술인증 확보 지원 등에 34억원을 투입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하며, 장성군이 군비 포함 13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

바이오산업 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5년간 군비 포함 100억원을 지원해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플랫폼은 고온, 고압

의 한계를 넘어서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초임계유체를 활용한 원료 추출 생산설비로, 높은 순도의 원료의약품을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다.

그밖에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을 비롯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원사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장성군 스타기업 지정 등에 군비 포함 22억 1500만원을 투입한다. 연구 개발, 기술 사업화,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분야별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장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건강하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천지전통시장, 관광·문화의 ‘명품시장’ 도약한다

공모 선정...8억4000만원 확보

함평천지전통시장이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품시장’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다.

특히 함평군은 지난해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31개 전통시장 중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약형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문화, 관광 등 지역 특화요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육성 ▲지

역 특산물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협동조합을 통한 상인 조직화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우리군과 사업단,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구어낸 성과”라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에 포도 전문가 떴다...샤인머스켓 교육 실시

군, 녹색문화대학 포도과정 개설

강진군이 최근 지역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 교육을 실시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녹색문화대학에 포도과정을 개설하고, 첫 교육으로 전 농수산대교수 이영철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최근 빛어지고 있는 규격 이하 포도 유통 및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에 대비해, 고품질 재배 이론과 현장 정정 교육을 병행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영철 박사는 금년 포도 산업발전 방향 및 포도 전반적인 재배 기술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당도 높은 포도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 전수에 집중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포

도 실증포에서 정정 방법을 직접 시연하는 참여식 교육 방법을 통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에서는 30농가(10.3ha) 규모로 샤인머스켓 포도를 주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참여해 포도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 지원하고 있다.

정동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엇보다 포도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강진의 지역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재배 농업인의 기술 향상과 인식개선을 통해 고품질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26일~2월 6일

화순군은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로, 공동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이며, 구성원의 80% 이상이 화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지역 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지역 내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활동 등이며, 지원내용은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 지원, 청년 공동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SNS 홍보 채널 운영 및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공지사항)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도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출력 가능하고, 신청자는 군청 기획감사실(인구정책팀)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1차 화순군, 2차 전라남도)를 거쳐 최종 선발된 청년공동체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을 위해 다양한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무궁화공원 가꾸러 왔어요 두산그룹 관계자와 무궁화사랑봉사단 20여명이 지난 11~13일 무궁화 전정 작업에 나섰다. 지난 2021년 장성공원 잔디광장에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한 장성무궁화공원은 46개 품종 1만 2000여 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되었으며, 100종 규모 품종원도 있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의 무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장성군 제공>